

탈모 환자,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지고 30~40대 급증

건강 바로 알기 탈모

더모 헤어플랜트 미지에 피부과 정진욱 원장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철이 되면 유독 탈모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최근 국내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탈모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구성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탈모와 관련된 제품의 구매 빈도가 여성이(60%)이 남성(40%)을 이미 앞질렀으며, 비교적 젊은층인 30~40대의 구매 비중이 7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탈모에 관심을 갖는 층이 중년에서 젊은층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성 탈모는 스트레스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최근 들어서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의 증가로 탈모증으로 인한 불편함을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 병원을 찾거나 탈모제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젊은 층의 탈모인구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의 바탕에는 기름진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등의 식생활의 변화가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학업과 직장 생활 내의 과도한 경쟁과 인간관계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사회생활의 어려움이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젊은이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도 탈모병원 방문과 탈모제품 구매력 상승의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조기 발견 치료시 90% 이상 치료 기대-탈모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스트레스와 심한 다이어트, 빈혈, 유전, 노화, 호르몬 변화, DHT(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등이다. 탈모증이 발생하면 처음에는 빠지는 머리카락이 많거나 모발이 힘이 없어진다. 탈모증이 심해지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머릿속이 줄어들면서 가라앉아

여성 사회참여 스트레스 많아지고 젊은층 식생활 변화 영향
탈모증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90% 이상 효과 기대

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 탈모의 증가는 여성들의 사회 참여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와 관련이 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의 증가로 탈모증으로 인한 불편함을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 병원을 찾거나 탈모제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젊은 층의 탈모인구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의 바탕에는 기름진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등의 식생활의 변화가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학업과 직장 생활 내의 과도한 경쟁과 인간관계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사회생활의 어려움이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젊은이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도 탈모병원 방문과 탈모제품 구매력 상승의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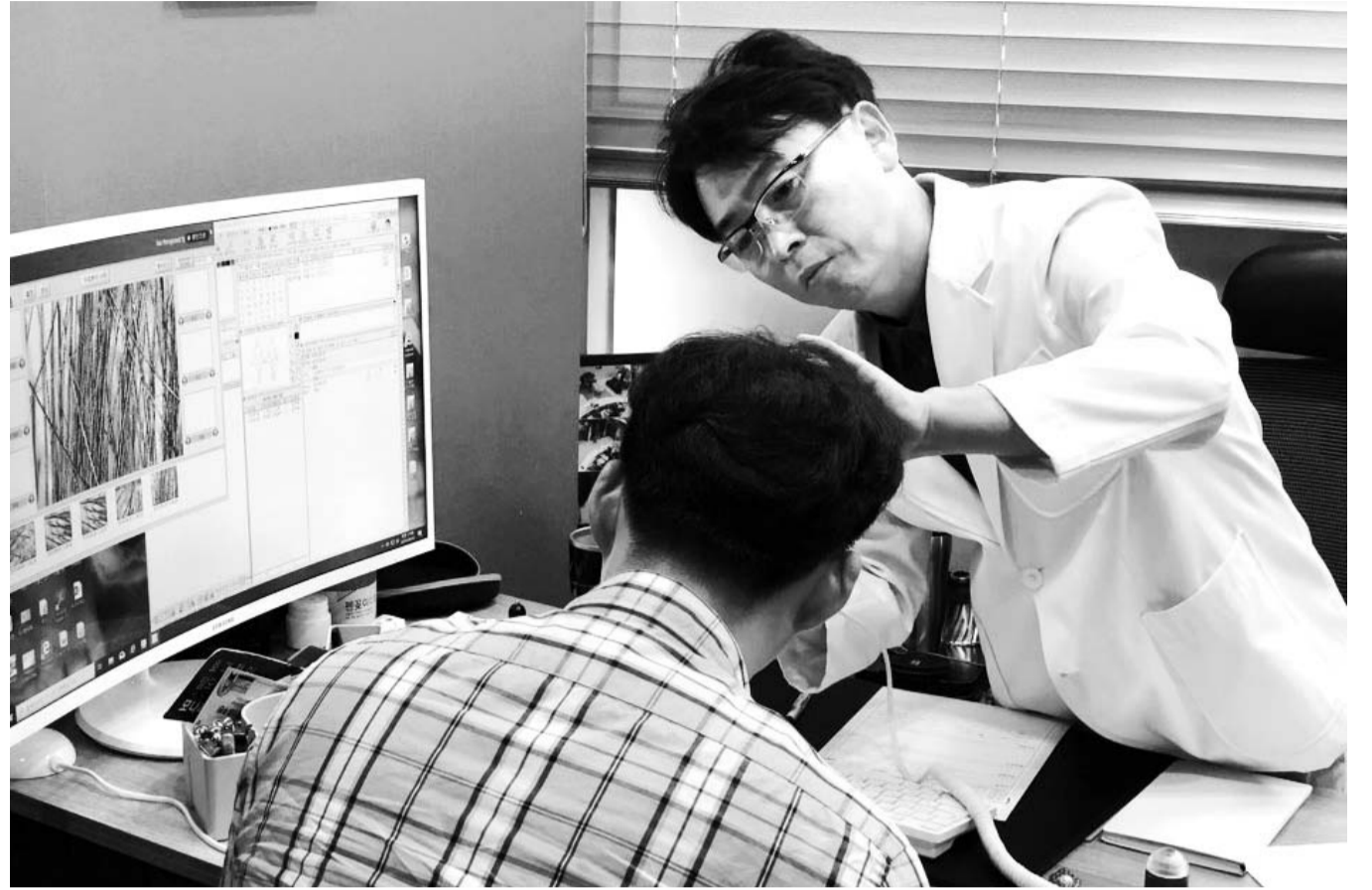
◇조기 발견 치료시 90% 이상 치료 기대-탈모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스트레스와 심한 다이어트, 빈혈, 유전, 노화, 호르몬 변화, DHT(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등이다. 탈모증이 발생하면 처음에는 빠지는 머리카락이 많거나 모발이 힘이 없어진다. 탈모증이 심해지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머릿속이 줄어들면서 가라앉아

어진다. 얇아지거나 넓은 이마도 탈모증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정진욱 더모 헤어플랜트 미지에 피부과 원장은 "탈모증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부과에서 자세한 검사를 받고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탈모증 치료의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 기대할 수 있으며, 가능한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90% 이상 치료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탈모증의 치료는 초기에는 먹는 약물과 바르는 약물 그리고 레이저나 자기장을 이용한 물리치료와 탈모관리치료로 가능하다. 다만 탈모증의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심한 탈모증은 모발이식 수술로도 회복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비절개 모발이식 로봇이 모발이식 수술에 이용되면서 통증을 줄이고 흉터도 줄이면서 모발이식 탈모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탈모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조기 발견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평상시 단백질·비타민·미네랄 등을 포함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평상시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이 탈모에



더모 헤어플랜트 미지에 피부과 정진욱 원장이 유전성 탈모증 진단을 위해서 두피 확대경 검사를 하고 있다. (더모 헤어플랜트 미지에 피부과 제공)

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 또한 과도한 음주나 흡연은 피해야 한다. 탈모 예방에는 콩, 생선, 채소 등 식물성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이 좋다. 마지막으로 탈모증이 의심되면 전문적이고 경험이 많은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탈모증

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풍성한 모발을 지키는 핵심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몽골 국립암센터 협력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해외환자 유치에 속도

화순전남대병원(원장 정진)이 몽골의 최고 암치료기관인 몽골 국립암센터(원장 친부렌)와 우호관계를 강화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와 해외환자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명근 진료처장(진단검사의학과)과 윤정환·박민호(내분비외과), 조성범(소화기내과), 이동훈(이비인후과) 교수 등 의료진들이 최근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외국인환자 유치 시장개척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 공모에 화순전남대병원이 올해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전남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컨소시엄 참여 의료기관인 목포기독병원·목포 동신대 한방병원 의료진도 동행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울란바토르시를 중앙아시아 의료진출 거점으로 삼기 위해 그동안 공을 들여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11년 울란바토르시에 있는 몽골 국립암센터와 MOU를 맺고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지속해왔다.

화순전남대병원 의료진은 이번 방문기간 동안 협약이 완료된 몽골 국립암센터와 새로이 MOU를 체결, 유대관계를 더욱 탄탄히 했다. 의료진의 교류 활성화를 비롯, 의료기술에 대한 정보교환과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암환자 무료진료와 몽골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현지 의료관광 에이전시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설명회도 병행, 현지 환자들과 의료 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무료 진료상담에 많은 환자들이 몰려 현지의 뜨거운 열기를 반영했다. 이들 중 일부는 화순전남대병원을 방문해 수술받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지난 2013년 화순전남대병원에서 기관절 수술을 받았던 울란치메씨는 울란바토르에서 무려 600km나 떨어진 곳에서



화순전남대병원과 몽골 국립암센터가 MOU를 재체결하고 우호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화순전남대병원 제공)

찾아와 진료상담을 받았다. 아버지와 어머니, 딸 등이 모두 화순에서 치료받았던 아담자브씨 가족도 현장을 찾아와 근황을 전했다. 화순전남대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던 진불드씨, 유방암 수술을 받았던 람파람씨 등도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와 진료상담을 받기도 했다.

정진 원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암특화 병원으로서, 몽골 국립암센터는 물론 몽골내 협력병원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며 "난치성 질환인 암치료를 위한 내실있는 상호 협조체제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청연한방병원, 한국-카자흐 한의약 진료 세미나 참석

청연한방병원(병원장 김지용)은 최근 카자흐스탄 아스펜디아로브 국립의과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카자흐스탄 한의약 진료 세미나에 참석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아스펜디아로브 국립의과대학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한의약 우수성 홍보 및 해외환자유치, 해외 진출 기반 마련과 한국-카자흐스탄 간 한의약 교육협력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카자흐스탄 정부기관 및 보건의료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는 청연한방병원, 대한한의학협회, 부산대한의

전, 한국한의학연구원 등이 한의약 소개와 적층·중풍·재활 등을 주제로 한의약 진료 시연 및 치료법을 소개했다.

비수술 척추 특수치료라는 주제로 발표와 진료 시연을 한 청연한방병원 국제진료센터 박종승 센터장(알마티청연 원장)은 "최근 정부간 협력을 통해 카자흐스탄 의과대학에 한의학 교과목 신설 등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청연한방병원도 민간 영역에서 카자흐스탄에 한의약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집밥보다 외식 잦은' 여성, 비만 위험 1.5배 ↑

집에서 밥을 거의 해 먹지 않고 밖에서 사 먹다시피 하는 여성은 집밥만 먹는 여성보다 비만할 위험이 1.5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팀(박은철·김휘준)은 2013~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9세 이상 1만8천19명(남 7

천225명, 여 1만794명)을 대상으로 외식이 비만과 과체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13일 밝혔다. 이 조사에서 우리나라 성인은 90% 이상이 외식을 하고, 하루 외식 비율이 51~100%에 해당하는 경우도 남성 22.8%, 여성 18.4%로 각각 집계됐다. /연합뉴스

동부 센트레빌 상가 매매 및 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1층 상가, 코너 800세대 APT 정문 앞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기타 서비스 공간 10평 있음)
 - 현재, 대형 할인마트 입점중
 - 매매 - 6억5000만원(대출 2억5천만 포함)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350만원
- 문의. 010-6834-7400

